

대학생의 자기주도성과 전공만족도가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고용가능성의 매개효과*

강 명 숙¹⁾

방 은 령²⁾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주도성, 전공만족도 및 고용가능성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자기주도성과 전공만족도가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고용가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남녀 대학생 706명을 편의표집하여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통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절차를 적용하여 고용가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가능성은 진로탐색행동에 긍정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으로 밝혀졌으나, 자기주도성과 전공만족도가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주도성과 전공만족도는 고용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용가능성은 자기주도성과 진로탐색행동 간의 관계, 그리고 전공만족도와 진로탐색행동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고용가능성의 증진방안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자기주도성과 전공만족도를 높게 형성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주요어 : 자기주도성, 전공만족도, 고용가능성, 진로탐색행동, 매개효과

* 본 연구는 제 1저자의 한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을 요약 및 수정, 보완한 것임.

1)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강사

2) 교신저자 :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E-mail: erbang@hanseo.ac.kr)

I. 서론

오늘날 직업세계의 상황은 예측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사회변동과 직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개인의 역량이 진로발달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고도의 적응력을 갖추어 평생진로를 창출해 나가는 일은 직업세계로의 이행과정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있어 당면한 과제인 동시에 평생의 과업이라 할 수 있다.

근래 들어 개인의 생애진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개발에 사회적 노력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진로탐색행동은 대표적인 생애진로역량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진로탐색행동은 전 생애에 걸친 자기구성(self-construction)의 과정으로서 개인의 정체성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대학생의 진로발달을 촉진함에 있어 중요한 변인으로(Flum & Blustein, 2000; 강명숙, 방은령, 2014에서 재인용) 주목받아 왔다.

진로탐색행동(career exploration behavior)은 진로선택 및 진로결정을 위하여 자신의 흥미, 적성, 능력 등을 평가하고 직업의 조건과 직업환경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하며 목표지향적인 속성을 지닌다(Blustein, 1988). 선행연구들이 밝힌 바로는 적극적인 진로탐색을 통하여 명확한 진로 방향과 대안을 갖게 되고 진로결정과 구직에 성공하며(박민경, 2010; 이상희, 정지후, 2015; 이지영, 장재윤, 김명언, 2005), 취업 이후의 직업 적응 및 경력성공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므로(노연희, 장재윤, 2005; Saks & Ashforth, 1999), 대학생이 취업에 성공하고 성공적인 진

로발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진로탐색 활동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조사된 바에 의하면 대학생들의 진로탐색 활동의 수준이 낮거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며, 구체적인 진로대안의 부재와, 진로계획 실천의 어려움, 전공과 적성 간 불일치 등으로 인해 진로선택 및 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제경, 설희연, 김선경, 2012; 조규판, 장은영, 2010; 최동선, 2003). 또한 대학생이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문제가 전공 및 진로·적성문제로서 이로 인한 자퇴나 휴학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져(김경희, 권재환, 2014; 조규판, 주희진, 2009; 진성희, 성은모, 2012), 진로탐색의 부진함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진로부적응 문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들을 밝힘으로써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을 촉진하고 진로역량을 강화시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최근에 대학생 및 성인의 진로발달과 관련하여 자기주도성(self-directedness)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자기주도성은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요구를 진단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과 전략을 활용한 후 학습의 결과를 평가하는 일련의 자기주도적인 학습활동 혹은 학습역량으로(Knowles, 1975) 알려져 왔다. 자기주도성은 능동적인 학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학습태도나 학습에 대한 인식 및 가치관, 학습역량 등을 강조하는 개념이며(Guglielmino, 1997; Oddi, 1986), 학습자의 다양한 인성적 측면을 포착하여 설명함으로써

(Merriam & Caffarella, 2007), 학습자를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학습을 스스로 주도해 나가는 능동적인 존재로 인식하고자 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자기주도성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또는 그 개념이 어떤 맥락에서 적용되는가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설명되어져 왔으며, 용어 역시 자기조절학습(self-regulated learning), 자기주도 학습(self-directed learning), 자율학습(independent study) 등 유사한 용어들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는 경향이 있다(배영주, 2006).

자기주도성이 높다는 것은 학습활동 수행 능력과 학습지속력이 탁월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자기주도성은 자율성과 자기책임성을 추구하려는 학습자의 내적 심리특성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개방적인 태도와 행동성향으로 표출되기도 한다(Stockdale & Brockett, 2011). 선행연구들은 조직 내 구성원의 자기주도성이 개인적 측면에서 직무수행능력이나 자기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조직의 성과나 생산적 측면에서도 대인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거나 조직학습을 활성화하는 등의 효과를 가진다고 밝혔다(김교식, 2004; 장태원, 홍아정, 2011). 또한 자기주도성은 성인학습자의 진로태도성숙과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문승태, 박미하, 양복만, 2012; 성현우, 2010; 천경희, 박은아, 송영명, 2011). 이처럼 일련의 학습과정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려는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이 높을 때 진로발달의 주요 영역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대학생의 자기주도성을 함양시킨다면 진로탐색행동의 수행수준이 향상될 것

임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주도성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소수(강명숙, 방은령, 2014; 박주연, 2013; 장은영, 2012)에 지나지 않으며, 이 두 변인 간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실증적인 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 대학생에게 있어 전공은 진로설정의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대학에서의 전공학습은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고 직업적 잠재역량을 키우기 위한 기반이라 할 수 있다. 대체로 진로와 관련된 학습활동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전공학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대학생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학습지속의향, 학습몰입 수준이 높고(이유정, 2012; 이태정, 2004; 조운형, 정진철, 문명, 2013; 주영주, 임연옥, 손현수, 2010),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나(이경아, 신혜린, 유나현, 이기학, 2008), 전공만족도가 학생들의 학습태도나 학업상황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공만족도와 진로발달과의 관련성은, 전공만족도가 전공 관련 진로선택과 직업흥미도(양명희, 박명지, 김희정, 2010; 장재윤, 신희천, 이지영, 2007; McIlveen, Beccaria, & Burton, 2013), 취업 후 직업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어(김재현, 2011; 남진열, 2010; 장원섭, 2010; 정주영, 2013), 전공학습에 대한 인식과 판단이 대학생의 일상적인 학습 활동뿐만 아니라 진로결정이나 직업인으로서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 됨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특히 진로탐색행동에 미

치는 전공만족도의 영향력은 진로의사결정수준에 의해 매개되거나(김장희, 2014), 진로결정 효능감에 의해 매개됨으로써(나정기, 2013; 문인오, 이경완, 2010; 진성희, 성은모, 2012) 간접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는 등 전공(학과)에 대한 인식과 진로행동과의 관계는 개인의 인지특성에 따라 다양한 영향관계가 성립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진로탐색행동이 단순한 정보탐색의 개념이 아니라 탐색과정에서 축적되는 정보와 체험내용이 개인의 내적 심리작용에 의해 통찰되고 통합되는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이며(Flum & Blustein, 2000), 진로탐색의 과정이 개인의 다양한 심리적 요인에 의해 다양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반증해 준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자기주도성을 함양하고 전공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진로탐색행동을 발현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이 선행연구들을 통해 밝혀졌으나, ‘자기주도성과 전공만족도가 진로탐색행동을 보다 직접적으로 촉발시키는 요인이 되는가?’에 대하여는 좀 더 정교한 규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내적 통제소재 등과 같은 자기핵심평가(core self-evaluation)가 개인의 진로행동이나 혹은 직무수행(Song & Cathoth, 2013)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른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에 따라 그 관계의 속성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강명숙과 방은령(2014)은, 학습자가 자신을 자율적(혹은 주도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자기도식(self-schema)의 심리특성이 진로행동과 같은 목표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특성변인은 좀 더 근원적인

원격 동기기제로 작용되는 경향이 있거나, 혹은 다양한 동기적 변인들을 매개함으로써 직접·간접적인 효과가 혼재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실제로, 진로탐색행동과 같은 목표추구행동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사회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SCCT)에서는 개인변인(예: 기질, 성, 민족, 건강 등)과 맥락변인(예: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 등), 그리고 학습경험, 인지기대, 자기효능감 등의 다양한 변인들을 진로행동에 단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들로 제시하고 있다(Lent, Brown, & Hackett, 1994). 그리고 이 모형을 국내 대학생들에 적용한 연구(손은령, 손진희, 2005)에서는 개인변인과 맥락변인이 진로행동 변인들(예: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수준 등)과 가지는 상관이 상관의 정도나 방향성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자기주도성 및 전공만족도의 영향력을 상정할 때, 자기주도성과 진로탐색행동의 사이에, 또 전공만족도와 진로탐색행동의 사이에는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성립될 뿐만 아니라, 다른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련성에 따라 진로탐색행동의 수행수준에 개인차가 발생될 가능성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자기주도성이나 전공만족도가 진로행동을 촉진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자기주도성이나 전공만족도가 진로와 관련된 개인효능감이나 고용가능성의 수준을 증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진로행동을 동기화하기 때문인데, 이와 같은 사실은 관련된 선행연구들(강명숙, 방은령, 2014; 나정기, 2013; 이성중, 유태용, 2013; 장재윤 등, 2007; 진성희, 성은

모, 2012)을 통해 실증적으로 밝혀진 바 있다.

특히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은 개인이 자신의 고용될 능력을 획득·유지·관리함으로써 실제 노동시장에서 고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지하는 것으로 그 개념이 알려져 있다(김성남, 정철영, 2010). 대학생의 고용가능성은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 진입해야하는 대학생의 현실과 상황적 측면을 반영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고용가능성의 개념 속에는 고용의 획득과 유지를 위한 개인특성이나 역량이 공통적으로 내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 그리고 고용에 대한 개인의 책임과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김성남, 2009; 오성욱, 이승구, 2008; Knight & Yorke, 2002). 즉 일반적으로 대학생의 고용가능성은 전공학습을 비롯한 다양한 학습활동의 성과, 전공과 관련된 자격 취득, 구직기술, 진로정보 탐색 등 폭넓은 구직(취업)준비활동이 고용가능성 변인의 핵심적 요소들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아직 실질적인 고용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고용가능성의 측정 방법은 주로 졸업 후의 고용획득 및 고용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학생이 스스로 판단하는 형식으로 측정되며(김성남, 정철영, 2010), 다루는 범위도 대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고용 준비 능력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주관적인 인식 차원에 국한시킬 수밖에 없다(이종찬, 2013). 즉 대학생의 고용가능성은 취업을 위한 목표설정 및 전략수립, 정보탐색, 구직기술(예: 면접, 이력서 작성 등), 취업스트레스 관리 등을 포함하는 일종의 구직준비도

(employment readiness)에 대한 개인의 지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고용가능성은 진로탐색행동이나 구직행동, 취업, 노동의 질 등과 높은 관련성을 가지는 변인으로 확인됨에 따라(오성욱, 이승구, 2008; 이정애, 2009; 장옥희, 2007; 조한익, 오홍석, 2011; 최동선, 2003; Betz & Vuyten, 1997), 고용가능성의 제고가 대졸 고학력자들의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고용가능성은 자율성, 책임감, 자기 동기부여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 행동양식인 셀프리더십이나, 지속학습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이성중, 유태용, 2013; 이정선, 김경아, 2012; 이종찬, 2013), 전공만족도나 대학 교육서비스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도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김재현, 2011; 조윤희 등, 2013) 논의 되어 왔다. 고용가능성은 특히 Harvey(2001)에 의해 그 개념이 대학생의 진로개발 역량, 구직능력, 고용만족 등으로 정의되는 가운데 대학기관의 교육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실용적인 개념으로서 적용된 바 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동기화시키고 행동을 유도한다. 특히 특정 행동수행에 대한 결과가 명확하고 긍정적으로 평가될 때 행동이 촉진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Stumpf, Colarelli와 Hartman(1983)은 진로탐색행동을 ‘개인이 관심을 가지는 직업, 직무, 직장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적인 행동 및 인지활동’(p. 192)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들은 진로탐색행동이 탐색의 과정적 요소(예: 탐색의 대상, 장소, 방법, 빈도 등)와, 고용에 대한 전망, 탐색유용성에 대한 신념,

정서반응(예: 탐색행동의 결과 수반되는 만족감, 불안 혹은 스트레스) 등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탐색행동이 수행된다는 사실을 모형을 통해 제시한 바 있다. 또한 Vroom(1964)도 개인의 행동수행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도출되리라는 믿음과 기대가 수반될 때 행동선택과 실행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고용획득과 고용유지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고용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나 탐색행동이 증가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자기주도성과 전공만족도가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 고용가능성이 매개적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대학생이 자기주도적인 학습역량과 태도로써 전공학습을 충실히 수행하며 전공(학과)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진로가능성을 모색할 때, 고용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으로 인해 진로탐색의 활동수준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용 준비 능력에 대한 주관적 확신을 의미하는 고용가능성은 대학생의 진로탐색 및 결정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덕목이라 할 수 있으며, 진로탐색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고용가능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자기주도성이 고용가능성 및 진로탐색행동과 어떤 인과적 관계를 가지는지 세 변인 간 관계를 직접적으로 검증한 예는 아직 발견되지 않아 그 영향관계를 구체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전공만족도 역시 진로태도성숙

도, 직업가치관 등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와(강승희, 2010; 양명희 등, 2010; 어윤경, 2011; Kenny & Rice, 1995; Logue, 2005), 졸업 후 취업의 질이나 직업만족도, 진로선택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보고된 바 있으나(장재윤 등, 2007; 정주영, 2013), 전공에 대한 개인의 지각과 판단이 고용가능성과 관련하여 진로탐색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세 변인 간 인과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자기주도성과 전공만족도가 고용가능성과 연계되어 진로탐색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관하여 네 변인을 통합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어, 제기된 이 네 가지 진로역량 간의 인과관계를 밝힐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자기주도성, 전공만족도 및 고용가능성이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변인들이 어떤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고용가능성이 자기주도성,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행동의 사이에서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가설적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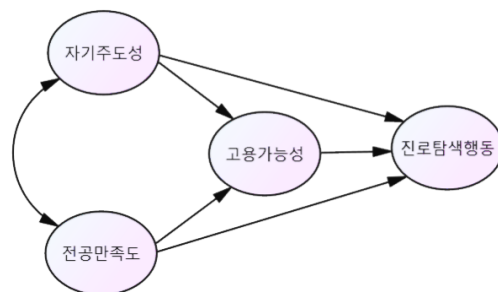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자기주도성, 전공만족도 및 고용가능성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의 자기주도성과 전공만족도가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고용가능성은 자기주도성,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행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도, 충청도 및 경상도 지역 소재의 대학교 남녀 대학생 706명을 편의표집 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응답자 706명 가운데 남학생이 347명(49.2%), 여학생이 359명(50.8%)이고, 학년은 1학년이 117명(16.6%), 2학년이 219명(31.0%), 3학년이 141명(20.0%), 4학년이 219명(32.4%)이었다. 또 1학년에 비해 전공과목 수강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2학년, 3학년, 4학년 학생이 589명으로서 전체 인원의 83.4%였다. 소속된 전공계열은 인문계열이 245명(34.6%), 사회계열이 194명(27.5%), 공학·자연계열이 191명(27.1%), 예·체능과 사범 및 기타계열이 76명(10.8%)으로 나타나 인문·사회계열이 전체의 62.1%로 가장 많았고, 예·체능과 사범 및 기타의 비율이 10.8%로 다소 적었다.

2. 측정도구

자기주도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주도성 척도는 유귀옥(1997)이 West와 Bentley(1990)의 자기주도학습준비도(SDRLS: self-directed learning scale)를 번역하여 사용한 것을 본 연구자가 대학생의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으로서 총 21문항으로 구성된다. West와 Bentley(1990)는 학습애착, 학습자로서의 자기확신, 도전에 대한 개방성, 학습호기심, 자기이해, 학습에 대한 책임수용 등 6개 하위요인(32문항)으로 구성된 자기주도학습준비도가 문항들 간 높은 상관성으로 인해 학습의지(학습애착, 개방성, 호기심), 학습자로서의 자기확신, 자기주도성(학습에 대한 책임수용, 자기이해) 등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도 압축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이운옥, 2006,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자기주도성 척도에 대한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탐색적 요인분석과 개별 측정도구에 대한 단변인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21문항으로 구성된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총 설명분산은 58.38%이었다. 추출된 하위요인 각각에 대하여 자기확신(예: ‘내가 꼭 공부해야겠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든 나 스스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습애착(예: ‘나는 배우고 싶은 것이 많아서 하루 24시간이 짧게 느껴진다’), 개방성(‘나는 내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배워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자율·책임(예: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학습해야 할지 내가 직접 관여하고 결정하기를 원한다’)이라 명명하였다. 문항반응형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6점)’의 리커트식 6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

활동에 대한 효능, 적극성 및 책임감이 높고 자발적 학습을 지속시키는 능력이 탁월함을 의미한다. 최종적으로 구성된 자기주도성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91이고, 학습애착은 .89, 자기확신은 .83, 개방성은 .73, 자율책임은 .73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공만족도 척도는 본 연구자가 이경아와 동료들(2008)의 연구에서 전공만족 요인의 5문항을 발췌하고, 또 장재윤과 동료들(2007)의 연구에서 전공몰입 척도 4문항을 발췌하여 총 9개의 문항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경아 등(2008)은 대학생의 학교적응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적응수준과 적응자원의 두 개 차원으로 구성된 대학생활적응척도를 제작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은 적응수준 차원의 하위영역 중 전공만족(5문항)에 해당된다. 또 장재윤 등(2007)은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심리적 애착을 나타내는 감정적 몰입 개념을 사용하여 전공에 대한 정의적 태도를 측정하였는데, 본 연구에 사용된 문항들은 전공이 자신의 가치와 잘 맞고 전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전공공부가 재미있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항목 묶기(item parceling) 방법을 적용하여 전공만족도 잠재변인이 3개의 측정변수를 갖도록 구성하였으며, 각 합성지표(composite indicator)는 각각 3개 문항의 평균을 산출하였다. 문항반응형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6점)’의 리커트식 6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이 자신의 적성이나 진로와 잘 맞는다고 생각하

며, 전공분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심리적 애착이 높음을 의미한다. 최종적으로 구성된 전공만족도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92이고, 전공만족1은 .76, 전공만족2는 .80, 전공만족3은 .81로 나타났다.

고용가능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고용가능성 척도는 이종찬(2013)이 사용한 것(23문항)을 문항들이 좀 더 쉽게 이해되도록 본 연구자가 문구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으로서 총 20문항으로 구성된다. 고용가능성의 개념은 학자마다 고용가능성의 다양한 측면들을 개념화하여 구성 요소에 포함시킴에 따라 그 의미가 복잡적이며, 하위요인이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고용가능성 척도에 대한 요인구조를 명확히 하고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탐색적 요인분석과 개별 측정도구에 대한 단변인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20문항으로 구성된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총 설명분산은 66.57%로 나타났다. 추출된 하위요인 각각에 대하여 구직대응성, 구직기술, 직업정보, 정신건강이라 명명하였다. 구직대응성은 직무와 관련된 대인관계능력이거나 업무처리능력, 정보공유 등 직업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의미하고, 구직기술은 이력서 작성, 면접요령, 일자리 대안형성 등 실질적인 구직능력 기술을 의미하며, 직업정보는 적합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수집과 활용, 필요한 인맥형성과 활용을 의미하고, 정신건강은 취업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는 심리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의미한다. 문항반응형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

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6점)’의 리커트식 6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구직대응성, 구직기술, 직업정보 및 정신건강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높게 지각함을 의미한다. 최종적으로 구성된 고용가능성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93이고, 구직대응성은 .92, 구직기술은 .86, 직업정보는 .84, 정신건강은 .83으로 나타났다.

진로탐색행동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탐색행동 척도는 최동선(2003)이 제작한 진로탐색행동검사 도구이며, 본 연구에서는 원 척도를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진로탐색행동 척도는 탐색대상에 따라 자신에 대한 탐색과(12문항) 직업에 대한 탐색(16문항)으로 구분되며 총 28문항으로 구성된다. 문항반응형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6점)’의 리커트식 6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다양한 방법과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을 이해하려는 행동 성향이 높고 각종 매체나 체험 등을 통해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 수집을 활발히 수행함을 의미한다. 최종적으로 구성된 진로탐색행동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93이고, 직업탐색은 .91, 자기탐색은 .86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데이터의 결측값 처리는 SPSS 18.0의 EM알고리즘(expectation maximization algorithm)을 사용하였다. 또한 AMOS 20.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측정모형(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모형에

대한 검증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2단계 접근법(Anderson & Gerbing, 1988)에 따라 모형을 검증하였으며, 최대우도법(ML)을 적용하여 측정모형의 적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할 때 절대 적합지수인 χ^2 값 외에도 RMR, CFI, TLI(NNFI), RMSEA 지수를 종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추정된 경로계수는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연구변인들의 영향관계에서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절차를 적용하였으며, BC(bias-corrected) 신뢰구간 설정 방법으로(홍세희, 2010) 검증하였다.

4. 자료수집 및 연구윤리 확보

설문기간은 2013년 12월 4일부터 2014년 1월 6일까지였으며, 연구자가 직접 대상 학교를 방문하여 설문하거나, 우편으로 질문지를 배부하여 사전에 협의된 해당교수가 검사를 실시한 후 회수하였다. 설문실시 전에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원칙)의 규정에 의거하여, 연구대상 학생들에게 관련법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 및 비밀보장 관련 내용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으며, 연구 참여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함으로써 연구자의 윤리규정을 준수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연구대상자의 특성 및 측정변인 간 상관관계, 정규분포성 검증

수집된 자료가 정규분포성의 기본가정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자 기술통계와 정규분포성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 먼저 잠재변인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전반적인 응답 수준을 살펴보면, 자기주도성의 전체 평균이 4.12($SD = .61$)로서 가장 높았으며, 전공만족도가 4.10($SD = .99$), 고용가능성이 4.12($SD =$

.69), 진로탐색행동이 3.64($SD = .72$)로서, 대학생들이 자기주도성과 전공만족도, 고용가능성을 약간 높게 지각하는 데에 비해 진로탐색행동의 수행수준을 상대적으로 낮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 모형에 포함된 측정변인들의 관계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18 \sim .83$, $p < .01$). 또한 총

표 1. 측정변인 간 상관행렬표 및 사례수, 표준편차, 왜도, 첨도

($N = 706$)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자기 주도성	1	1												
	2	.64	1											
	3	.65	.66	1										
	4	.63	.55	.56	1									
전공 만족도	5	.28	.30	.22	.30	1								
	6	.28	.28	.21	.26	.83	1							
	7	.33	.37	.30	.35	.77	.71	1						
고용 가능성	8	.52	.51	.50	.51	.26	.26	.32	1					
	9	.47	.41	.39	.32	.20	.22	.22	.57	1				
	10	.43	.42	.37	.38	.30	.32	.31	.59	.59	1			
	11	.40	.35	.34	.33	.19	.20	.18	.55	.52	.46	1		
진로탐색 행동	12	.31	.37	.25	.24	.21	.21	.27	.30	.46	.45	.22	1	
	13	.32	.37	.32	.31	.21	.18	.24	.40	.42	.39	.27	.63	1
평균		4.06	4.15	4.02	4.26	4.07	4.08	4.16	4.40	3.85	4.17	4.04	3.51	3.78
표준편차		.71	.73	.70	.74	1.03	1.16	1.04	.76	.78	.89	1.00	.82	.78
왜도		.09	.08	.13	-.01	.03	-.17	-.25	-.01	.29	.00	-.12	-.16	-.08
첨도		-.17	-.05	-.21	-.02	-.39	-.46	-.04	-.45	.06	-.25	.10	.26	.39

주. 모든 상관계수는 $p < .01$ 수준에서 유의함.

1. 자기확신 2. 학습애착 3. 개방성 4. 자율책임 5. 전공만족1 6. 전공만족2 7. 전공만족3 8. 구직대응성 9. 구직기술 10. 직업정보 11. 정신건강 12. 직업탐색 13. 자기탐색.

13개 측정변인들에 대한 정규분포성을 검증한 결과, 왜도(-.25~.29) 및 첨도(-.46~.39)가 모두 절대값 기준의 미만으로 나타나 정규분포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모형의 적합도 평가와 모수치 추정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추정한 결과, $\chi^2(59, N = 706) = 262.91, p < .001$, $RMR = .03$, $TLI = .95$, $CFI = .96$, $RMSEA = .07(.06 \sim .08)$ 로서 χ^2 를 제외한 대부분의 적합도 지수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측정모형의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척도의 수렴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잠재변인별 하위요인의 요인부하량(표준화 계수)을 확인한 결과 자기주도성이 .72~.83, 전공만족도가 .82~.94, 고용가능성이 .65~.79, 진로탐색행동이 .78~.81으로서 모두 .50 이상이므로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CR = 14.63 \sim 34.01, p < .001$). 또한 잠재변인의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을 산출하여 수렴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자기주도성이 .62, 전공만족도가 .78, 고용가능성이 .54, 진로탐색행동이 .63로서 모두 .50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변인들이 충분한 수렴적 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척도의 변별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였고, 두 변인의 상관계수를 제공한 값(ϕ)을 해당 잠재변인들의 평균분산추출 값과 비교하였다. 먼저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자기주도

성이 전공만족도와 $r = .39$, 고용가능성과 $r = .73$, 진로탐색행동과 $r = .50$ 의 상관이 나타났으며, 전공만족도는 고용가능성과 $r = .37$, 진로탐색행동과 $r = .30$ 이었으며, 고용가능성은 진로탐색행동과 $r = .63$ 의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 쌍의 잠재변인의 AVE 값 각각을 해당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의 제곱과 비교한 결과, 모든 경우에 두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해당 잠재변인의 AVE 값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변별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3. 구조모형의 적합도 평가와 모수치 추정 결과

측정모형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되어 초기구조모형의 적합도를 추정한 결과, $\chi^2(59, N = 706) = 262.91, p < .001$, $RMR = .03$, $TLI = .95$, $CFI = .96$, $RMSEA = .07(.06 \sim .08)$ 로서 χ^2 를 제외한 나머지 적합도 지수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모수치를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서 자기주도성($\beta = .69, CR = 14.95, p < .001$)과 전공만족도($\beta = .10, CR = 2.78, p < .01$)는 고용가능성에 정(+)의 방향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고용가능성은 진로탐색행동에 정(+)의 방향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55, CR = 7.47, p < .001$). 따라서 모형이 실제 자료를 잘 설명하고 적합도나 간명성 측면에서 더 바람직한 모형을 본 연구의 최종 모형으로 채택

표 2. 초기 구조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유의성 검증 결과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자기주도성 → 고용가능성	.70	.69***	.05	14.95
전공만족도 → 고용가능성	.07	.10**	.02	2.78
전공만족도 → 진로탐색행동	.04	.06	.03	1.46
자기주도성 → 진로탐색행동	.09	.08	.07	1.19
고용가능성 → 진로탐색행동	.58	.55***	.08	7.47

** $p < .01$. *** $p < .001$.

표 3. 초기 구조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모형	NPAR	DF	χ^2	RMR	TLI	CFI	RMSEA	
							LO90	HI90
수정모형	30	61	267.09	.03	.95	.96	.07	
							.06	.08
초기구조모형	32	59	262.91	.03	.95	.96	.07	
							.06	.08

하고자 자기주도성에서 진로탐색행동에 이르는 직접경로와 전공만족도에서 진로탐색행동에 이르는 직접경로를 삭제시킨 보다 간명한 수정모형을 설정하고 적합도를 추정하였으며, 이를 초기 구조모형과 비교하여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서, 수정된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61, N = 706) = 267.09$, $p < .001$, $RMR = .03$, $TLI = .95$, $CFI = .96$, $RMSEA = .07(.06 \sim .08)$ 로서, 초기모형과 수정된 간명모형은 위계적인(hierarchical)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두 모형의 χ^2 값을 이용하여 두 모형을 직접 비교하였다. χ^2 검증 결과, $\Delta\chi^2(2, N = 706) = 4.17$, $p > .05$ 로서 임계치 $5.99(= \chi^2_{.05}(2))$ 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두 모형의 적합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정모형 역시 실제자료를 잘 설명하고 있음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수정모형이 모형의 간명성 측면에서 더 우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수정모형을 본 연구의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으며, 모수치를 추정한 결과, 모든 경로가 .001($\beta = .64 \sim .69$, $CR = 12.72 \sim 15.11$), $p < .001$ 과, .01($\beta = .11$, $CR = 3.04$, $p < .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그림 2).

4. 고용가능성의 매개효과 검증

다음으로, 자기주도성이 고용가능성을 매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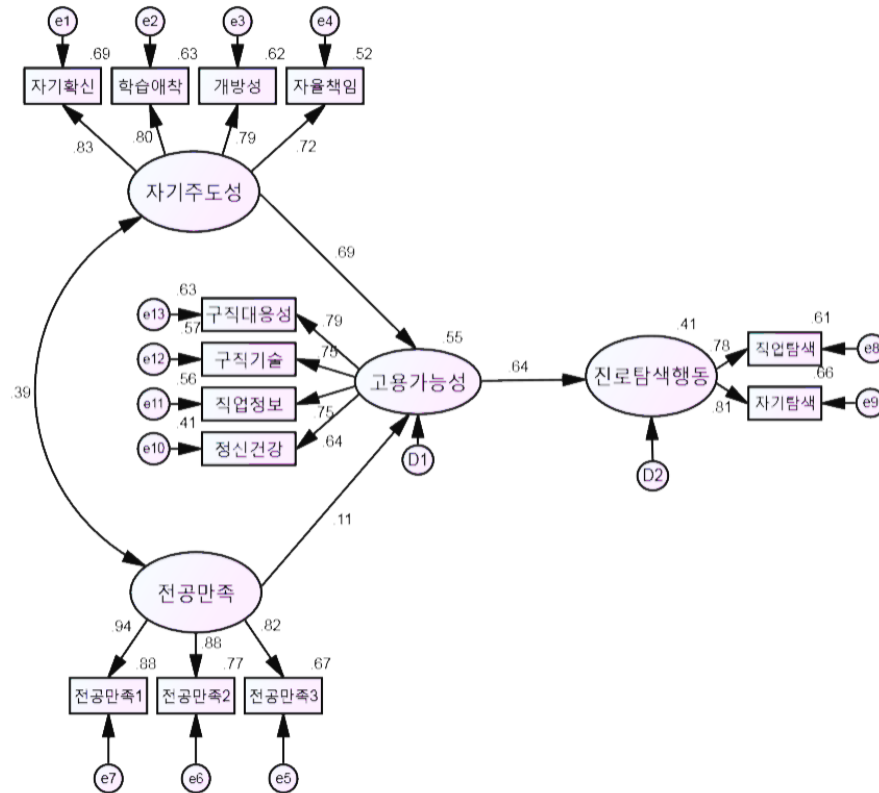


그림 2. 최종 구조모형의 모수치 추정 결과

로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전공만족도가 고용가능성을 매개로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고용가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최종 구조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다중상관자승(SMC, R^2)을 통하여 독립변인들의 설명력을 확인하였다. 표 4에서 자기주도성과 전공만족도는 고용가능성을 약 54.5% 설명하고, 자기주도성, 전공만족도 및 고용가능성은 진로탐색행동을 약 41.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두 .40 이상을 상회하므로 종속변인들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설명력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연구변인들의 영향관계에서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부트스트래핑을 적용하여 검증하였으며, BC(bias-corrected) 신뢰구간 설정 방법으로(홍세희, 2010) 검증하였다. 두 간접경로에서 고용가능성에 대한 매개효과의 추정치,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값과 유의도 검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자기주도성이 고용가능성을 매개로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고용가능성의 매개효과는 $B = .48$ 으로서 p 값이 .001이며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만족도가 고용가능성을 매

표 4. 최종 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분석 및 다중상관지수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SMC
종속변인	독립변인				
고용가능성	← 자기주도성	.69**		.69	.55
고용가능성	← 전공만족도	.11**		.11	
진로탐색행동	← 고용가능성	.64**		.64	.41
진로탐색행동	← 자기주도성		.44** (.48)	.44 (.48)	
진로탐색행동	← 전공만족도		.07** (.05)	.07 (.05)	

주. 괄호는 비표준화 경로계수.

** $p < .01$.

표 5. 최종 구조회귀 모형의 개별 매개효과 검정 결과

경로	비표준화 계수	SE	95% 신뢰구간 (Lower-Upper)	p
자기주도성→고용가능성→진로탐색행동	.48	.05	.38-.57	.001
전공만족도→고용가능성→진로탐색행동	.05	.02	.01-.08	.005

개로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고용가능성의 매개효과는 $B = .05$ 로서 p 값이 .005이며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주도성과 전공만족도가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세 변인의 인과관계가 고용가능성에 의해 완전매개 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기주도성과 전공만족도는 고용가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고용가능성을 매개로 진로탐색행동의 수행 수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자기주도성이 높고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대학생은 자신의 고용가능성을 높게 인식하게 되고,

고양된 고용가능성으로 인해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기주도성, 전공만족도 및 고용가능성이 진로탐색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인과관계의 구조를 규명하고, 이 과정에서 고용가능성이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최종 모형의 검증결과를 요약하

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자기주도성, 전공만족도 및 고용가능성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본 연구의 결과 고용가능성은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으로 밝혀졌으나, 자기주도성과 전공만족도가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탐색행동의 수행 수준이 대학생의 학습역량과 태도, 그리고 전공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보아, 고용(취업)을 위한 목표설정 및 전략수립, 정보탐색, 구직기술(예: 면접, 이력서 작성 등), 취업스트레스 관리 등에 대한 주관적 지각 수준인 고용가능성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됨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Vroom(1964)은 개인의 믿음이나 기대가 행동의 선택과 실행을 촉진한다고 보았으며, Bandura(1999) 역시 개인은 자신의 효능을 토대로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성공적 수행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자신이 지각하는 바를 실제 행위로 전이시키려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고용가능성이 진로탐색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들이 고용 준비 과정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과제수행능력을 높게 지각하고 고용에 대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심리가, 진로탐색행동을 보다 직접적으로 촉발시키는 근접동기로(김아영, 2004) 작용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진로탐색행동의 수행모형을 제시한 Stumpf 등(1983)은 미래의 고용가능성

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일수록, 또 탐색활동을 가치 있게 인식하고 탐색결과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진로탐색행동이 활발하게 전개된다고 주장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이들의 연구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직업획득가능성(고용가능성)이나 기대과업수행효능감, 직업탐색효능감 등이 진로목표추구활동(진로탐색행동)이나 구직행동, 구직성과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고한 연구들(오성욱, 이승구, 2008; 이정애, 2009; 장옥희, 2007; 조한익, 오홍석, 2011)과도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자기주도성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자기주도성과 진로탐색행동과의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검증한 선행연구들(박주연, 2013; 장은영, 2012)과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진행된 강명숙과 방은령(2014)의 연구와는 일치하는 결과로서, 이는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특성 변인으로서의 자기주도성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고찰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강명숙과 방은령(2014)은 연구에서 진로탐색행동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직접적인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자기주도성이 학습몰입과 진로결정효능감을 통하여 간접효과를 나타냄으로써, 진로탐색행동이 동기적 요인들과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의 결과도 이와 동일한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자기주도성과 진로탐색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탐색행동을 촉발시키는 다양한 매개적 요인들이 존재할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공만족도가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만족도와 진로탐색행동 간의 관계가 진로의사결정수준에 의해 매개되거나(김장희, 2014), 진로결정효능감에 의해 매개됨으로써(강승희, 2010; 나정기, 2013; 진성희, 성은모, 2012) 진로탐색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하여 Betz와 Vuyten (1997)은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결과에 대한 기대수준이 진로탐색의도를 강하게 형성시키고 이러한 심리적 작용이 탐색행동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낸 결과라고 주장한다. 즉, 진로탐색행동과 같은 목표지향행동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이 수반될 때 실질적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을 본 연구결과에 적용해 보면, 고용가능성에 대한 높은 기대와 신념이 대학생으로 하여금 고용과 관련된 목표행동으로 움직이도록 함으로써 진로탐색행동을 촉진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을 실질적으로 발현시키고 이를 보다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용 준비와 관련된 구체적인 과제들을 수행하도록 독려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감이 형성되도록 도와야 할 것임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2. 자기주도성과 전공만족도가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자기주도성과 전공만족도가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자

기주도성과 전공만족도의 수준이 높을수록 고용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이 효율적인 학습자로서의 자기확신, 책임성, 개방성, 긍정적인 학습태도를 가지고, 전공학습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전공(학과)에 만족감을 경험하는 것이, 고용 준비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높게 인지하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음을 보여준다.

자기주도성은 학습자의 계획이나 모니터링과 같은 메타인지 전략과, 자발적 참여나 목표유지와 같은 동기적 요인, 학습자의 행동조절이나 환경통제와 같은 행동 요인이 통합적으로 작용되는 다면적인 속성을 지니며(권성연, 강명희, 2003), 이러한 자기주도성은 학습지속 의향이나 학습몰입 수준과 높은 관련성을 지닌다(이유정, 2012; 이태정, 2004; 조윤희 등, 2013; 주영주 등, 2010).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자기주도성이 높은 학습자의 인지·동기·행동적 요소가 전공학습에 대한 효능감과 수행력을 높여 전공학습에 대한 만족감을 경험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전공분야에서의 고용획득가능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전망을 형성하도록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뿐만 아니라 자기주도성이 높은 학습자는 학습자원을 스스로 관리하며 학습과정에서 의사결정과 선택행동의 주체가 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Merriam & Caffarella, 2007), 학습자의 이러한 특성이 고용(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고용목표를 계획하고 달성하려는 의지를 형성하고 고용과 관련된 과제수행능력을 높게 지각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조직구성원의 지

속적인 학습활동이 고용경쟁력(고용가능성)과 조직·일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이성중, 유태용, 2013), 셀프리더십 또는 프로티언 경력태도가 고용가능성 및 주관적 경력성공(고용가능성,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연구들(배을규, 이민영, 장민영, 김정원, 2014; 이종찬, 2013)과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 나타난 변인 간 관계는, 공학핵심역량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고용가능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전주현, 2013), 혹은 개인-학교 적합성과 개인-전공 적합성이 취업가능성과 학업성취도, 학습몰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조운형 등, 2013) 영향관계와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들은 대학생의 자기주도성 등과 같은 학습역량과 태도, 그리고 전공만족도 등과 같은 학습경험의 질이 고용가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임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Hall과 Foster(1977)는 심리적 성공과 목표설정의 순환적 관계를 제시한 바 있다. 즉 개인이 목표를 설정하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고, 행동의 결과로서 심리적 성공을 경험하게 되며, 그 결과 몰입과 자기효능감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증가된 몰입경험과 자기효능감은 다시 목표설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구조를 형성하게 된다고 보았다. Hall과 Foster(1977)의 이와 같은 순환개념을 본 연구결과에 적용해 봄으로써 대학생의 고용가능성을 고양시킬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즉 대학생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학습에 참여하고 구체적인 진로계획을

수립하면, 자신의 직업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목표를 가지게 되고, 실질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며 구직활동을 수행하는 등 자신의 희망 진로에 점차 몰입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대학생의 고용(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화된 지원체계를 통하여 학교 및 전공에 대한 적합도와 만족도를 높게 인식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전공학습에 대한 몰입경험을 증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진로상담이나 교육, 멘토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용 준비와 관련된 일련의 과제수행 과정에 적절히 개입함으로써 학습경험과 진로(구직)활동을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자기주도성과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행동 간의 관계에서 고용가능성의 매개효과

본 연구의 결과, 고용가능성은 자기주도성과 진로탐색행동 간의 관계, 그리고 전공만족도와 진로탐색행동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함으로써 자기주도성과 전공만족도가 진로탐색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이 자기주도적인 학습역량과 태도를 가지고 전공학습에 몰입하여 만족감을 경험하는 것이 진로탐색행동을 직접적으로 촉진한다기보다는, 자신의 고용(취업) 준비 능력에 대한 지각을 통하여 진로탐색행동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이와 같은 결과는, 자기주도성이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학습

몰입과 진로결정효능감에 의해 완전 매개됨으로써 두 변인 간에 간접적인 효과가 나타난 연구(강명숙, 방은령, 2014), 그리고 대학생의 자율성 수준 혹은 진로결정 자율성 수준이 자기성장주도성이나 진로자기효능감에 의해 완전 매개됨으로써 진로탐색(준비)행동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난 연구들(김지근, 이기학, 2011; 박고운, 이기학, 2007)과도 유사하다. 또한 조직구성원의 지속학습 활동, 자기효능감 등이 진로목표추구활동, 조직(일)몰입, 직무유효성(job effectiveness)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고용경쟁력(고용가능성)이나 진로결과기대, 직업획득가능성 등과 같은 심리변인들이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밝혀진 선행연구결과들(김순미, 2009; 서경민, 2010; 이성중, 유태용, 2013; 이정선, 김경아, 2012; 이정애, 2009)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Bandura(1986)의 사회인지이론을 진로분야에 적용한 사회인지진로이론(Lent et al., 1994)에서는 개인의 학습경험이 어떻게 진로발달에 영향을 주는지 설명하기 위하여 흥미모형, 선택모형, 수행모형이 서로 연계된 진로발달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수행모형에 따르면 개인의 행동 수행과 성취 수준은 학습능력,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목표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즉 자기효능감에 대한 믿음이 강하고, 결과에 대한 기대가 긍정적일수록 더 높은 목표를 수립하여 결과적으로 진로능력의 발달을 촉진시키게 된다. 또 Stockdale과 Brockett(2011)은 자기주도성이 학습자의 자기통제성, 자율성을 추구하는 내적 심리특성을 반영한다고 보았으며, 학습자

스스로 자신과 환경적 요소를 통제하는 자기책임성향(responsibility)이 자기주도적 학습과정에서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자기주도성과 전공만족도가 고용가능성을 매개로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친 본 연구 결과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자의 높은 자기통제 및 책임지향성이 학습의 효율성과 수행능력을 높이고, 고용가능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진로탐색행동을 촉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역량과 태도, 그리고 전공(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와 인식이 진로탐색의 실질적인 행동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고용(취업)을 위한 목표설정 및 전략수립, 정보탐색, 구직기술(예: 면접, 이력서 작성 등), 취업스트레스 관리 등 고용 준비 과정의 다양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함을 반증해 준다. 즉 자기주도적인 학습역량과 태도, 그리고 전공학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더라도 대학생 스스로 고용과 관련된 자신의 특성과 자질을 높게 지각하지 못한다면 진로탐색행동의 발현 가능성을 확대시키기 어렵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을 활성화 하는 과정에서 고용가능성 변인이 실질적인 촉매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러므로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용준비 능력을 높게 지각할 수 있도록 실행과정을 지원하는 현실적인 원조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하며, 이와 함께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의 적극적인 진로탐색행동의 근원적인 시발점은 본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자기주도적인 학습역량, 그리고 전공학습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긍정적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학습활동, 진로탐색 및 진로결정을 위한 일련의 활동들은 개인의 성적관리나 취업 등의 단기적인 효과 측면에서 바라보기 보다는, 지속가능한 진로역량을 함양하는 차원에서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조망을 토대로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자기주도적인 학습역량과 태도는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생애진로의 핵심역량이라 할 수 있으며(이석재, 장유경, 이현남, 박광엽, 2003), 미래계획이나 진로개발 등 삶의 중요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그러므로 대학생 스스로가 자기주도성을 고양하고 직업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가도록, 진로역량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용 준비 과정에 대한 유능감과 고용에 대한 높은 기대가 적극적인 진로탐색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의 진로탐색을 활성화하고 그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용가능성의 증진 방안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대학생의 고용 준비 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과제들을 제공하고 과제실행을 독려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진로계획 및 진로목표 달성에 대한 자신감이 형성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생 개개인의 학습역량과 잠정적인 진로대안, 개인의 환경과 독특한 삶의 궤적들

이 충실히 고려될 수 있도록 보다 개별화된 지원 방안(예: 학습코칭이나 진로 멘토링 등)을 고려함이 미래 고용획득과 관련된 대학생의 전망과 기대를 높이는 데에 유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선행연구(Hektner, 1996)를 통해 볼 때 대학생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과 진로탐색활동은 심리적 안녕(psychological well-being)의 근간을 이루게 됨으로써 대학생의 삶의 질과 강력한 연관성을 가질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대학생의 학습과 진로, 그리고 삶의 질 측면을 고려함으로써 대학생의 일상적 삶이 반영된 생애진로과정을 총괄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직업세계로의 성공적인 이행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해서는 졸업 후 취업의 질이나 시간경과에 따른 변인들 간의 관계성 등을 분석할 수 있는 보다 확장된 연구설계(예; 종단적 연구)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성별, 학년, 학교특성 등 개인특성 변인들이 통제변인으로 다루어짐에 따라, 이들 특성에 따른 연구모형의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Lent 등(1994)은 성별, 연령(학년), 건강 등의 개인특성이나, 진로장벽, 사회적 지지 등의 근접맥락변인들에 의해 진로발달에 개인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으며, 실제로 다수의 선행연구들(김미란, 민주홍, 2011; 김유호, 2013; 양난미, 2006; 이종찬, 홍아정, 2013)을 통해 개인특성별 집단에 따른 진로행동(발달)의 차이가 밝혀지기도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취업준비, 졸

업 후 희망진로에 따라 잠재변인들에 부분적으로 수준차이가 존재하였음이 확인된 바 있으며, 이러한 변인들이 연구모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집단에 따른 특성을 함께 고려하는 분석방법(예: 다집단 분석 등)을 활용한다면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가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기주도성, 전공만족도 및 고용가능성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자기주도성과 전공만족도가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고용가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자기주도적인 학습자 특성과 전공학습이 대학생의 고용 준비 및 진로탐색활동과 같은 삶의 주요 국면으로 적용되는 심리적 과정을 규명하였으며, 고용가능성이 대학생의 진로행동을 발달시키기 위한 주요 연결점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즉 대학생이 평생진로를 창출해나감에 있어 직업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진로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자기주도성, 전공만족도, 고용가능성 및 진로탐색행동의 네 가지 요소를 갖추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강명숙, 방은령 (2014). 대학생의 자기주도성, 학습몰입, 진로결정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 간의 관계 구조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0(4), 443-467.
- 강승희 (2010). 공학전공 대학생의 전공학과 만족도와 진로결정효능감 및 진로태도성숙 간의 관계. 수산해양교육연구, 22(2), 151-164.
- 권성연, 강명희 (2003). 자기조절학습의 단계와 구성요인의 규명. 교육학연구, 41(3), 239-273.
- 김경희, 권재환 (2014). 대학생의 학업 및 진로스트레스, 수용행동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모형 검증. 인간발달연구, 21(4), 43-60.
- 김교식 (2004).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W그룹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란, 민주홍 (2011). 대학졸업생의 노동시장 안착과정과 전공별 차이. 직업능력개발연구, 14(1), 1-21.
- 김성남 (2009). 대학생의 고용가능성 진단 도구 개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성남, 정철영 (2010). 대학생의 고용가능성 진단 도구 개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2(2), 139-161.
- 김순미 (2009).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진로결과 기대, 진로결정몰입 및 진로탐색행동의 구조 관계 분석.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아영 (2004). 자기효능감과 학습동기. 교육방법연구, 16(1), 1-38.
- 김유호 (2013). 대학생의 전공에 따른 진로선택 만족 및 전공적응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보건의료계열과 사회과학계열의 비교

- 를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9(10), 165-182.
- 김장희 (2014).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요인 및 진로의사결정수준의 매개효과 분석. 직업교육연구, 33(2), 121-144.
- 김재현 (2011). 전문대학 교육서비스가 전문대학생의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근, 이기학 (2011).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진로결정에의 몰입의 모형 검증: 자기성장주도성과 환경에 대한 진로탐색행동 및 자신에 대한 진로탐색행동을 매개변인으로. 상담학연구, 12(1), 81-97.
- 나정기 (2013).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의 전공만족도, 진로탐색 자기효능감, 진로탐색행동간의 관계분석: 조리, 제과, 제빵 전공을 중심으로. 외식경영연구, 16(6), 239-264.
- 남진열 (2010). 대학생의 개인적 직업 관련요인과 취업준비실태의 관계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2(4), 353-375.
- 노연희, 장재운 (2005). 대학졸업자들의 진로미결정 및 직업탐색행동이 개인-직무 적합과 개인-조직 적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4), 23-43.
- 문승태, 박미하, 양복만 (2012). 학습의 자기주도성 및 진로적응성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25(3), 39-60.
- 문인오, 이경완 (2010).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능감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6(1), 83-91.
- 박고운, 이기학 (2007). 진로결정 자율성 수준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409-422.
- 박민경 (2010). 대학생의 전공몰입과 진로탐색효능감이 직업탐색행동과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주연 (2013). 자기주도학습, 창의성, 대인관계능력이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영주 (2006). 아동의 자기주도 학교학습의 가능성과 실현 조건의 탐색. 교육과정연구, 24(2), 299-319.
- 배을규, 이민영, 장민영, 김정원 (2014). 중소기업 구성원의 프로티언 경력태도와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서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매개효과: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중심으로. HRD연구, 16(1), 1-25.
- 서경민 (2010). 기업구성원의 경력개발지원과 고용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직무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조직몰입, 경력몰입의 매개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성현우 (2010). 평생학습자의 교육과정에 따른 자기주도학습준비도와 진로태도성숙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은령, 손진희 (2005). 한국 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준비행동: 사회인지적 진로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99-417.
- 양난미 (2006). 한국 대학생의 사회인지 진로선택 모형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명희, 박명지, 김희정 (2010). 대학생의 전공-흥미 일치도, 직업흥미 수준이 전공만족도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직업교육연구*, 29(2), 137-156.
- 어윤경 (2011). 청소년기 진로상담 만족도 및 진로성숙 간의 관계 분석: 대학 전공선택요인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2(5), 1793-1811.
- 오성욱, 이승구 (2008). 구직자의 고용가능성요인 탐색 및 취업효과 측정에 관한 연구: 인천지역 고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1(3), 87-103.
- 유귀옥 (1997).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성과 인구학적 및 사회 심리적 변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경아, 신혜린, 유나현, 이기학 (2008). 간편대학생활적응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9(2), 739-754.
- 이상희, 정지후 (2015).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단계(VISA), 정체감 스타일과 내러티브 정체감 비교 연구. *인간발달연구*, 22(1), 143-165.
- 이석재, 장유경, 이현남, 박광엽 (2003). 생애능력 측정도구 개발 연구: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중심으로(연구보고서 No. 2003-15-3).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성중, 유태용 (2013). 지속학습활동이 조직몰입과 일몰입에 미치는 영향: 고용경쟁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6(1), 47-72.
- 이유정 (2012).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대학생활만족도, 자기주도적 학습력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옥 (2006). 자기주도학습 개념 분석 및 측정도구 개선방향에 관한 제언. *아동교육*, 16(1), 19-30.
- 이정선, 김경아 (2012).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취업전략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2), 19-39.
- 이정애 (2009). 자기효능감과 직업가치 및 직업획득가능성이 진로목표추구활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제경, 선혜연, 김선경 (2012). 진로미결정 대학생의 진로고민 내용 및 원인과 결과. *아시아교육연구*, 13(2), 1-24.
- 이종찬 (2013).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고용가능성의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종찬, 홍아정 (2013).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고용가능성에 차이와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HRD연구*, 15(3), 215-245.
- 이지영, 장재윤, 김명언 (2005). 대학 4년생들의 진로미결정, 직업탐색행동 및 구직성과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1), 1-23.
- 이태정 (2004). 몰입경험이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옥희 (2007). 대학생의 진로관련 효능감이 직업탐색행동 및 구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원섭 (2010). 대학에서의 취업준비와 노동시장 성과: 교육과 노동시장 연계와 성과.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은영 (2012).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율성, 자아 분화, 자기주도학습능력 및 진로탐색행동 간의 구조관계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재윤, 신희천, 이지영 (2007). 대학에서 ‘진공’에 몰입하면 좋은 직장을 얻게 되는가?: 대학생들의 전공 몰입이 취업의 질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0(4), 415-435.
- 장태원, 홍아정 (2011). 조직구성원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흡수능력과 정서적 몰입 및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 지식경영연구, 12(2), 17-34.
- 전주현 (2013). 공학교육인증제도 참여 대학생의 공학핵심역량이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주영 (2013). 대학교육만족도, 직업가치관, 직업만족도에 관한 구조적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1(1), 53-83.
- 조규관, 장은영 (2010). 대학생의 내·외 동기, 전공몰입, 지연행동이 진로탐색 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3(4), 211-227.
- 조규관, 주희진 (2009). 에니어그램을 활용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9(2), 273-291.
- 조윤희, 정진철, 문명 (2013). 개인-학교, 개인-전공 적합성과 취업가능성, 학업성취도와 의 관계: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멘토링의 조절효과. 대한경영학회지, 26(3), 749-780.
- 조한익, 오홍석 (2011). 조절초점과 인지적 기대가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2), 123-143.
- 주영주, 임연옥, 손현수 (2010).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과제가치의 학습몰입, 교과만족도, 학습지속의향 예측. 직업능력개발연구, 13(3), 101-122.
- 진성희, 성은모 (2012). 고등교육에서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공학계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직업교육연구, 31(1), 1-18.
- 천경희, 박은아, 송영명 (2011). 의과대학생의 자기조절학습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직업교육연구, 30(4), 161-177.
- 최동선 (2003).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동기 요인 및 애착의 관계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세희 (2010). 구조방정식 모형: 초급, 중급, 고급. 고급연구방법론 워크샵 시리즈 8. S & M 리서치그룹.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 441-423.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ndura, A. (1999).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자기효능감과 인간행동: 이론적 기초와 발달적 분석. 김의철 · 박영신 · 양계민(공역). 서울: 교육과학사. (원본 발간일, 1997)

- Betz, N. E., & Vuyten, K. K. (1997).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 influence career exploration and decidednes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 179-189.
- Blustein, D. L. (1988).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al processes and career explor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2, 345-357.
- Flum, H., & Blustein, D. L. (2000). Reinvigorating the study of vocational exploration: A framework for resear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 380-404.
- Guglielmino, L. M. (1977). *Development of th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 Hall, D. T., & Foster, L. W. (1977). A psychological success cycle and goal setting goals, performance, and attitud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0(2), 282-290.
- Harvey, L. (2001). Defining and measuring employability. *Quality in Higher Education*, 7(2), 97-110.
- Hektner, J. M. (1996). *Exploring optimal personality development: A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 Kenny, M. E., & Rice, K. G. (1995). Attachment to parents and adjustment in late adolescent college students: Current status, applications, and future considera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s*, 23, 433-456.
- Knight, P. T., & Yorke, M. (2002). Employability through the curriculum. *Tertiary Education and Management*, 8(4), 261-276. DOI: 10.1080/13583883.2002.9967084
- Knowles, M. S. (1975). *Self-directed learning: A guide for learners and teachers*. New York, NY: Association Press.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79-122.
- Logue, C. T.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raits, vocational interest themes, and college major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nnessee.
- McIlveen, P., Beccaria, G., & Burton, L. J. (2013). Beyond conscientiousness: Career optimism and satisfaction with major.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3, 229-236.
- Merriam, S. B., & Caffarella, R. S. (2007). *Learning in adulthood* (3rd e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Oddi, L. F. (198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strument to identify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 3(2), 10-21.
- Saks, A. M., & Ashforth, B. B. (1999). Effects of individual differences and job search behaviors on the employment status of recent university graduat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4, 335-349.
- Song, Z., & Cathoth, P. K. (2013). Core self-evaluation and job performance: The mediating role of employees' assimilation-specific adjustment factors. *International Journal*

- of Hospitality Management*, 33, 240-249.
- Stockdale, S. L., & Brockett, R. G. (2011). Development of the PRO-SDLS: A measure of self-direction in learning based on the personal responsibility orientation model. *Adult Education Quarterly*, 61(2), 161-180.
- Stumpf, S. A., Colarelli, S. M., & Hartman, K. (1983). Development of the Career Exploration Survey(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191-226.
- Vroom, V. H. (1964). *Work and motivation*. New York: Wiley.
- West, R. F., & Bently, E. L. (1990). Structural analysis of th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A confirmatory analysis using LISREL modeling. In H. B. Long, & associates (Eds.), *Advances in research and practice in self-directed learning* (pp. 157-180). Norman, OK: Oklahoma Research Center for Continuing Professional and Higher Education of the University of Oklahoma.
- 1 차원고접수 : 2015. 10. 09.
수정원고접수 : 2015. 11. 13.
최종게재결정 : 2015. 12. 01.

The Influence of Undergraduate Students' Self-Directedness and Major Satisfaction upon Career Exploration Behavior and the Mediating Effect of Employability

Kang, Myung-Sook

Bang, Eun-Ryoung

Dept. of Child and Youth Welfare, Hanseo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self-directedness, major satisfaction and employability on career exploration behavior. In the course of examining the influence of self-directedness and major satisfaction upon career exploration behavior, the mediating effect of employability was examined. A survey was conducted through a convenience sampling of 706 undergraduate students. In order to examine the influential relationship among study variables,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was carried out. Bootstrapping method was appli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employabil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employability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career exploration behavior. However, self-directedness and major satisfaction were found to have no significant direct impacts on career exploration behavior. Second, self-directedness and major satisfaction were found to have positive impacts on employability. Finally, employability was found to have a perfect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rectedness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an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Accordingly, there needs to be more consideration given to enhancing employability in order to promote career exploration behavior. And undergraduate students' self-directedness and major satisfaction should be developed well in order for students to have a sustainable career competency.

Keywords: self-directedness, major satisfaction, employability, career exploration behavior, simple mediation